

지역 매아리

고창군, 다문화 맞춤형 식습관 개선 특화 프로그램 큰 호응

고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현영)가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씩 총 5회에 걸쳐 진행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多)문화 다(多)함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多)문화 다(多)함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바람직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먼저, BIA(In-body) 기기를 이용한 체성분 검사를 통해 다문화 아이의 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영양 상담을 했다.

이어 선정한 식재료를 활용한 '놀이 활동'에 이어, 친해진 식재료를 활용한 '오감 만족 요리 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쑥, 토마토, 콩과 두부, 쌀과 현미, 연근 등의 식재료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놀이해보고, 요리하고, 먹어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고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김현영 센터장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 아이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편식 없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식습관 형성 및 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44개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영양사들이 위생·안전·영양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지원을 받아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무형문화재 발표회 개최

부안군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보안면 무형문화재 종합전시관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5종목의 전북도 무형문화재 공개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무형문화재 보유종목을 공개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행사는 부안군이 보유한 무형문화재 5종목 가운데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7-1호 부안농악, 제23호 죽엽제소장, 제20호 사기장(고려상감장자), 제30호 대목장, 제34호 가사가 공연과 전시를 하게 된다.

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관 및 참여가 가능하다.

최연근 군 문화관광과장은 "예향부안의 뛰어난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시민 행복 시대, 정읍 번영 시대'

유진섭 시장,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정 운영 계획 연설

유진섭 시장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설명하는 시정 연설에서 "시민 행복 시대, 정읍 번영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내년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시정 연설에서 유 시장은 "지난 2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실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더 큰 희망과 꿈들이 반드시 현실이 되도록 1,6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크게 7개 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제시한 목표는 ▲사람 중심의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 ▲지역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좋은 일자리를 창출 ▲포용적 복지로 따뜻한 정읍 만들기 ▲200만 관광 시대 달성 ▲농업기반 확대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만들기 ▲시민편의 중심의 미래를 여는 도시공간 조성 ▲시민행복 공감, 감동 시정 실현을 위한 시정운영 등이다.

유 시장은 주요 시정운영 방향과 관련,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밝혔다. 특히 유 시장은 뛰어난 경관과 문화예술 자산을 기반으로 매력 있는 문화도시, 200만 관광 시대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행사와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정읍을 찾아오게 하고 정읍의 자랑인 농축과 무성서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진섭 시장이 13일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내년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다.

프로그램과 문화자원 발굴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정부호도시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등 전국적인 명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헬름 안 치료기 기술개발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도모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용적 복지로 따뜻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정읍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과 이양산 유아숲체험원, 어드벤처 복합놀이실 활성화 등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2019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 가진 이날 연설에서 유 시장은 시의 재정여건과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도 밝혔다.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9152억원이다. 일반회계가 8천530억 원, 특별회계가 622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8512억원에서 7.5%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8530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23.7% 늘어난 830억 원이고, 의존 재원인 지방 교부세는 4천47억 원, 조정교부금은 19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972억원이다.

관련해 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없애고, 시급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정읍의 당당한 미래를 위해 더 큰 정읍을 떠날 줄 주춧돌 하나하나를 놓아가는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겠다"며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논콩 수확 현장방문 농가 격려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논콩 수확 현장을 찾아 직접 콤바인을 몰며 농가일손을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행안면 대초리 고성식씨(60) 농가로 올해 7ha 농지에 벼 대신 콩을 심었으며 이번이 수확하는 품은 농협을 통해 C그룹에 납품할 계획이다.

올 가을 연이은 태풍에도 올해 콩

작황은 양호한 편이며 콩(백대) 도매 가격은 kg당 4500원 안팎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안군 예상수확량은 3560여톤으로 185억원의 높은 소득이 예상되며 이는 쌀 소득대비 2배 가량 높은 소득이다.

올해 부안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은

1198ha로 목표면적 대비 122% 달성했으며 이중 논콩 재배면적은 1080ha이다. 논콩 면적 확대에 따라 콩 수확기, 콩 전정기, 톱백 지원, 논콩 단지 육성 등 논콩 재배 농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권 군수는 "수확철을 맞아 콩 수확 현장에 참여해 농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다"며 "특히 가을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에 주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체류형 관광지 기반구축 '가속'

정읍시·JB 금융지주 내장산리조트에 JB 연수원 건립 MOU 체결

정읍시가 가을 관광으로 집중된 내장산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3일 전북은행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 JB연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와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은행은 JB연수원 건립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립 예정인 JB연수원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대형 분양부지 3개 필지 약 1만 평(3만4266㎡) 규모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약 86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48만여 평(160만5364㎡)의 부지조성을 완료했다. 이중 공공부지를 제외한 33.8만 평(111만7554㎡)의 부지를 민간에 분양

해 건설·운영하게 되는 민자유치 대상 사업이다.

민간분양부지 33.8만 평(111만7554㎡) 중 현재 28.8만 평(98만5126㎡)이 분양 완료되어 8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내장산 골프&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호텔부지 등 대형부지가 아직 미분양상태이며 일부 분양된 소형 상가와 숙박 시설 부지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JB연수원 건립계획은 나머지 대형부지에 대한 투자촉진은 물론 소형 분양부지의 건축 조성사업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JB연수원 건립은 2020년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부지 분양계약이 완료되면 전체 부지 분양률은 면적 기준 91.22%로 증가하게 된다.

유진섭 시장은 "JB연수원이 전국 최고의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은행과 협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내장산리조트를 중심으로 정읍시를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정읍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군민 행복 실현

부안군의회는 1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행감특위는 부안군의회 3층에 감사장을 열고 오는 21일까지 9일만에 걸쳐 국·영·과·소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함으로써 집행부가 올바르게 정책집행 되도록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해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중간 점검하고 소관부서별 업

무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점은 정정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는 반복되는 사태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기 행감특위 위원장은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오히려 집행부 예산 부분도 세심하게 점검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행세가 남비되는 사태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감특위는 다음달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방치된 지정폐기물 수거로 쾌적한 환경 조성

고창군이 관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는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및 폐유)을 수거·처리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군민 안전보장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석면은 폐암, 악성종양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고가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지역 곳곳에 방치돼 왔다. 이를위해 군은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 관내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15

톤과 폐유 2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노후주택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을 위한 처리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5억4500만원을 투입해 주택 216동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 등으로 국내 최초 행정구역 전체가 생활권보전지역 지정된 고창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everal smaller images of gift sets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contents listed.